

# 대형서점들, 신도시에 속속 분점 개설

분당·평촌·부천 등지에 대규모로 들어서...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자임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의 분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최근 서울문고 분당에, 영풍문고가 평촌과 부천에 각각 분점을 개설했고, 이미 교보문고는 2년전부터 성남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촌문고는 마포구 공덕동에 분점을 두고 있다.

서울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들은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오던 터. 책 한권 구입하려 해도 마땅한 서점이 없었다. 한편 대형서점들도 중·소 서적상의 반발이 거의 없는 신도시들은 구미가 당기는 지역. 소비자들과 공급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신도시에 대형서점의 분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서점의 분점들은 입점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점의 성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서도 모태인 본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실내장식이나 공간배치는 본점과 닮은꼴이다.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을 자임하는 것은 분점들의 공통점이다.

## 신도시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지난 10월 5일 문을 연 서울문고 분당점(지사장 이원우)은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세워진 '북 앤드 뮤직' 빌딩에 300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문고는 분당과 일산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분당에 분점을 열었다. 지하철 서현역사를 포함해 주변에 짓고 있는 건물들이 완공되면 서현역 주변의 1일 유동인구는 16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당 신도시의 인구는 40만명에 달한다. 개점일에는 7만 5천여명이나 다녀갔다. 평일에는 방문객이 격감하지만 서현역 주변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주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문고 분당점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다. 지하 1층에 문구와 음반, 학습참고서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배치했고, 1층에는 잡지와 컴퓨터 서적을 배열했다. 2층은 문학과 아동, 그리고 취미서적을, 나머지 전문서적은 3층에 배치했다. 2층 문학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주부 권경희씨(성남시 분당구)는 "책이 필요하면 서울 시내 대형서점까지 가는 불편

본점	분점	개점일	면적(평)	전철역
교보문고	성남점	94.12.3	136	태평
서울문고	분당점	96.10.5	300	서현
신촌문고	공덕점	95.9.5	200	공덕
영풍문고	평촌점	95.6.10	500	범계
	부천점	96.10.12	500	부천

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가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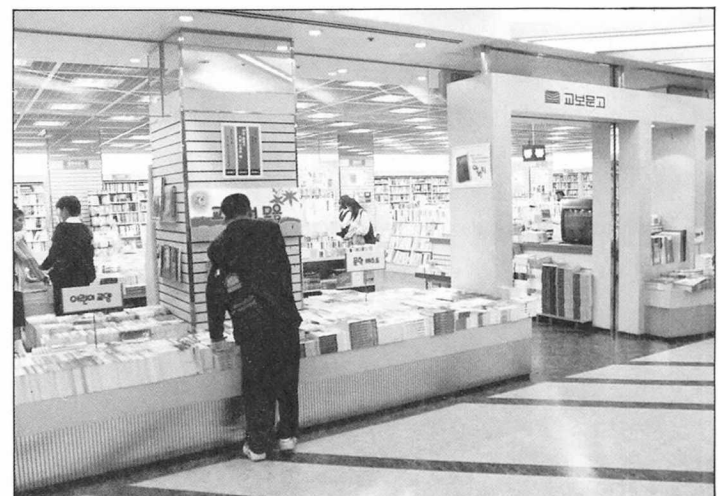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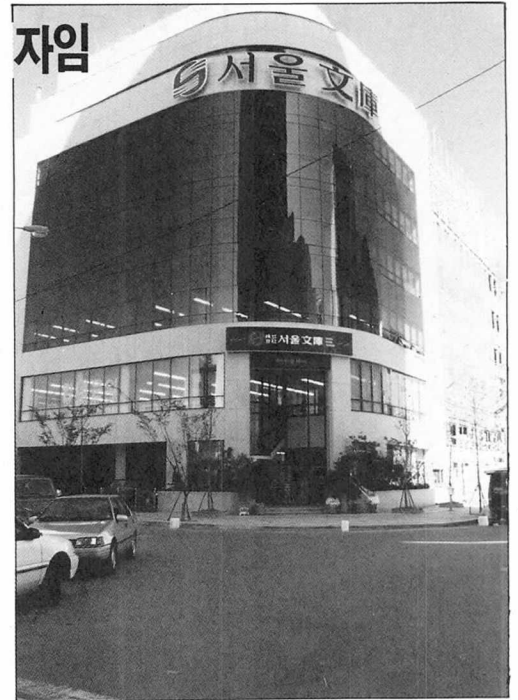
또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하 2층에 50평규모의 이벤트를 갖춰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다. 개장기념행사로 소설가 박범신씨를 초청, '저자와의 만남'을 가졌고, 10월 한달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문학강좌를 열고 있다. 고운기 시인(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데, 24일 주제는 <나의 시와 살아온 이야기>.

영풍문고는 평촌점의 성공적인 자리잡기에 이어 지난 10월 12일 부천점(지점장 최학식)을 열었다. 경인선 부천역 앞 로얄백화점 신관 2, 3층에 500평 규모로 자리한 부천점은 중동 신도시를 배후지로 삼고 있으며 인천 지역까지 가시권이다. 전문서적 위주가 될 계획인데, 이는 서가배치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2층 매장에 인문·문예·정경·자연·공학·종교·컴퓨터·외서 코너가 마련돼 있고, 참고서·아동·취미 실용서 및 문구점은 3층에 있다.

지난 6월 10일로 개점 1주년을 맞은 영풍문고 평촌점(지점장 한광석) 역시 500평 규모의 대형서점. 과천시 범계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평촌 아파트 주민의 호응에 힘입어 월매출액이 전년 대비 55~6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촌점의 시장권은 안양을 기반으로 의왕·산본·안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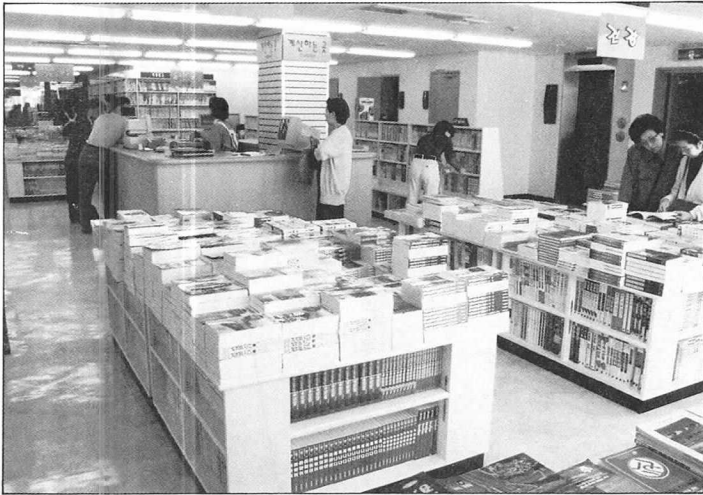
고객층도 다양하지만 주고객은 30대 주부. 김소은 주부(안양시 동안구)도 평촌점이 생기기 전에는 백화점에 있는 서점을 이용했다. 필요한 책이 잘 갖춰져 있어 한달에 서너번 책을 구입한다. "주부 독자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촌점 한광석 지점장은 말한다. 이른바 삼류소설보다는 《천지간》(문학사상사) 같은 본격소설의 판매가 호조

책 한권 구입하려 해도 마땅한 서점이 없던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 대형서점의 분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임을 자임하는 이들 분점은 서점의 체인화로 가는 길목으로 보인다. 시장수요에 맞는 중소규모 모델 개발도 요청된다.



다. 다른 책이 본점과 5대 1의 비율로 나가는 데 비해 이 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팔렸다. 판매점유율은 아동서적이 16.5%

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학습참고서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해 보면 평촌점의 특질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여성 관련



최근 신도시에 잇따라 대형서점의 분점이 문을 열었다. 위부터 서울문고 분당점, 영풍문고 평촌점, 교보문고 성남점의 내부.

서적이 상위에 랭크돼 있다. 본점 순위에는 없는 《홍길동》(지경사)이 10위에 올라 있는 점도 특색. 주로 젊은 주부층이 자신이 읽을

책이나 자녀를 위한 책을 사고, 대학생이나 청·장년층은 서울 도심에서 책을 구입하는 평촌지역의 책구매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서점측도 이런 구매 패턴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사진전시회(현암사)·유아그림책 전시회 등을 개최했다.

### 서점 체인화의 길목

교보문고 성남점(지점장 전병석)은 94년 12월 3일 문을 열었다. 87년 전국 대도시에 분점을 개설하려다 좌절한 '쓰라린' 기억이 있는 교보문고는 성남점 개설에 조심스런 행보를 취한다. 지역 서적상과의 협의 아래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모기업의 성남지점 건물 지하아케이드에 136평 규모로 들어섰는데 이웃한 다른 업종의 매장과 견줄 때 오히려 수궁하다. 본점에서 일하다 6개월전 이곳으로 옮긴 김혜란 조장은 "화기에애하고 한가롭다"고 성남점의 분위기를 전한다.

성남점의 특색은 목적구매가 이뤄지는 점. "고객의 90%가 미리 구입할 책을 작성하고 온다"고 전 지점장은 말한다. 이와 관련 본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PC를 통해 본점 매장의 책을 검색할 수 있고, 주문판매도 하고 있다. 본점에 오후 5시까지 주문이 들어가면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책이 도착한다. 주문판매를 이용하는 손님은 하루 20명선.

신촌문고 공덕점(지점장 손영자)은 서울에 분점이 있는 경우. 신촌문고 개점 10년에 즈음하여 지난해 9월 5일 문을 열었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 이웃한 효성빌딩 지하 아케이드에 등지를 틀고 있다. 개점 1년이 넘었지만 빈 책꽂이도 더러 눈에 띈다. 공덕역 구간은 12월 개통 예정이고, 주변의 빌딩 건축도 진행중이 것이 많아 앞날을 기약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점심시간과 퇴근 무렵에 직장인이 많이 몰린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포구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강정에 영업과장은 말한다. 도서관도 그렇지만 이만한 서점이 있는 자치구도 드문 형편이기때문에 마포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직장인이 주로 찾는만큼 처세와 성공을 위한 경영서, 어학 교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장인 필독서를 소개하는 특설코너를 운영하기도 한다. "직장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신촌문고 공덕점의 포부다.

수도권에 들어선 대형서점의 분점은 서점의 체인화로 가는 길목으로 보인다. 무작정 서점 규모를 늘릴 수는 없을 터이고 보면 시장의 수요에 맞는 중·소 규모의 서점 모델 개발도 요청된다. 또 영세 상인들과의 점점 모색도 긴요한 일이다.

—최성일 기자

### 알림

## 정기구독자에게 별책부록 '총목차'를 드립니다

《출판저널》 통권 200호를 맞아 창간호부터 200호까지의 기사를 호별, 주제별로 정리한 색인집이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서비스용으로 비매품 한정본으로 발간하였기에 《출판저널》을 정기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출판저널 호별 목차·주제별 색인》(B5/242면)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